

방송가 소식

BBS 사장선임 논의

불교방송 이사회가 1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는 △95년 결산승인건 △불교방송 특별사업승인건(대담건립 관련) △불교방송 발전위원회 구성건 △사장선임문제 △정관계정실의 소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주佛放 AM전파

미주불교방송(이사장 담오스님)이 오는 24일부터 매주 1시간씩 미주한인방송 AM전파를 통해 방송지역을 확대한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미주불교방송의 성공적인 AM 방송을 위해 미화민달려를 지원했으며, 불교방송도 방송확대에 따른 교리강화 등 1천시간분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면조정 새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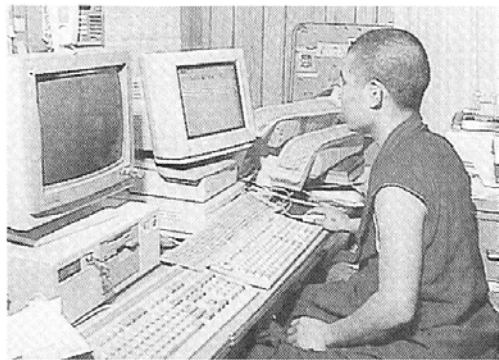
불교TV가 3월 개편과 더불어 불교채널의 특성을 살린 화면조정화면을 새롭게 단장했다. 매일 마지막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날 아침 9시 45분까지 방송되는 화면조정방송은 심우도를 비롯 유명불교미술작품을 배경으로 신작에서 구작에 이르는 찬불가를 함께 내보내게 된다.

“전자매체 포교방안 찾아라”

“스님, 국민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근처 사찰의 어린이 법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법회 활동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도 익히고 같은 또래 아이들의 신행생활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스님과 신도가 컴퓨터 앞에 앉아 화상 신행상담을 하고 화상설법을 들을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더이상 가상 현실이 아니다. 바로 몇년 뒤에 우리에게 닥쳐올 멀티미디어 시대의 현실이다.



천태종 간부 1만명 단합법회

22일부터 전국사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22일 서울지역(삼봉사)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 9개지역에서 간부들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간부단합법회를 개최한다.

1만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하는 이번 간부단합법회는 23일 인천 경기지역(용인 백인사), 24일 강원도지역(강릉 삼계사), 25일 대구 경북지역(안동 해동

btn ‘뉴미디어시대...’ 9일 정보사회 불교역할 점검

시대의 현실이다.

지난해 ‘TV 부처님 도래’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앞으로 몇 년 후면 ‘컴퓨터 부처님’이 멀티미디어 세상 곳곳에서 화려하게 펼쳐질지 모른다.

불교TV는 지난 9일 창사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뉴미디어시대의 포교’(PD 유경준)에서 뉴미디어 시대 도래라는 첨단시대에

대비한 불교계의 새로운 포교 전략을 모색했다.

이 프로는 21세기 생활의 필수품으로써 우리생활형태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컴퓨터대

성장,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주요 일간지들의 뉴미디어 사업참여 등의 실례를 통해 급속한 정보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대한 준비가 없

‘부다피아’ ‘대장경 연구소’ 전산화 앞장 전문가 양성·사찰네트워크 구축 시급

전자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포교방안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이에대한 전 사부대중의 노력과 대응을 상기시켰다.

최근의 데이터와 하이텔의 급격한 대량 데이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교계 최초의 사찰 전자서기관인 현대 불교신문의 ‘부다피아’,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장경연구소의 해인사 장경각 전산화사업 등 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포교를 위한 바람직한 정보산업의

면 대상 불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교계 최초의 사찰 전자서기관인 현대 불교신문의 ‘부다피아’,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장경연구소의 해인사 장경각 전산화사업 등 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포교를 위한 바람직한 정보산업의

면 대상 불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교계 최초의 사찰 전자서기관인 현대 불교신문의 ‘부다피아’,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장경연구소의 해인사 장경각 전산화사업 등 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포교를 위한 바람직한 정보산업의

면 대상 불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교계 최초의 사찰 전자서기관인 현대 불교신문의 ‘부다피아’,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장경연구소의 해인사 장경각 전산화사업 등 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포교를 위한 바람직한 정보산업의

면 대상 불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불교계 최초의 사찰 전자서기관인 현대 불교신문의 ‘부다피아’,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장경연구소의 해인사 장경각 전산화사업 등 불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불교포교를 위한 바람직한 정보산업의

정기사회를 개최하고 위덕대

순제서 총장등 신임교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덕대 정교에 덕일장사(최정삼인당)를 임명하고 30년 근속 심인중 정회영교감, 20년 근속 심인중 이상운교감등 10명에게 근속포장을 수여키로 결의했다.

환경보존 실천법회

태고종, 27-28일 평택호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평택호 국민관광단지에서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북 총무원에서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임교원 22명 임용

전각종 회장학원(이사장 희

일)은 지난달 27일 제 2백4회

한불청 ‘마음의 전화’ 개통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 부설 ‘마음의 전화’ 개통식 및 기념법회가 지난 1일 혜초 태고종 총무원장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견지동 녹수청사에서 개최됐다.

광주BBS 개국 1주년

불교광주방송은 개국 1

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광주 신암파크호텔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호남지역 방송포교시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최근 서울 명동1동 수도암에서 법당에까지 들어와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말리다 이 사찰의 사무장 김진수씨(70)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사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죽음까지 이르게 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부 기독교인들의 무차별한 ‘신도사냥’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목탁 소리

정성운

(취재1부 기자)

최근 서울 명동1동 수도암에서 법당에까지 들어와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말리다 이 사찰의 사무장 김진수씨(70)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나이갈 길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컴퓨터 통신망 전리안 불교동호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 3일간 전자우편을 통한 질문을 통해 ‘뉴미디어시대의 불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불교계 정보화 노력이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단차원의 전달기구와 교육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불교계가 타 종교에 비해 뒤진 부분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컴퓨터 통신망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부분의 후진성이 50%, 각종자료의 전산화사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났다.

따라서 ‘뉴미디어시대의 포교’란 정보화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과 전문인력의 양성, 전국사찰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전 불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은자 기자



◇경주 남산 탐곡계곡 부처비위 뒷면에 새겨진 9층탑 앞에서 황룡사 9층탑과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취재팀.

“황룡사 옛모습 영상으로 본다”

KBS 특수기법 복원...초파일 특집 방영

신라왕국의 영화를 대변했

던 호국불교의 중심이자 국왕이던 황룡사. 1238년 몽고의 침략으로 불에 타 현존하는 거대한 터와 주춧돌만이 남아있는 그 황룡사의 영화가 오는 초파일 되살아난다. KBS가 연중기획으로 마련한 ‘KBS 10대 문화유산 제 2편 영상복원 황룡사’를 통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이 프로그램은 미스터리 기법을 이용해 황룡사의 흔적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황룡사의 모습을 특수영상제작실과 실사를 통해 복원한다.

지난 64년 구경탑에서 발견된 사리구 내면에 새겨진 명문을 바탕으로 높이 80m(약 27층 건물높이)의 황룡사 구경탑을 현 황룡사 터에 컴퓨터 그래픽과 실사를 통해 세밀 그 정해진 높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며, 또한 인도 아육왕이 보내온 황금과 철로 만든 6미터 높이의 장옥관상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재현, 황룡사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맡은 황용호 PD는 “이미 1차 답사와 촬영을 모두 마쳤다. 오는 16일부터는 일부와 중계를 방영, 황룡사가 건립된 7세기 경의 가람형태와 무렵형식을 비교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현재 경주의 한 단체에 의해 황룡사 복원계획서가 문화재관리국에 제출된 상태”라면서 불교계가 이번 기회에 기억속에 사라져 버려져 가는 동양 최대의 사찰 황룡사 복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사의 4배가 넘는 2천5백여평의 경내에 3개의 금당과 80m 높이의 거대한 탑이 위치한 웅장한 황룡사. 황용호PD는 “특수영상제작실의 전문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된 가상현실 황룡사를 MC와 함께 들어가 황룡사 구경탑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 오는 초파일에는 TV를 통해 사라진 천년고찰 황룡사를 참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

허리우드 영화사들이 달라

이 리마의 일생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경쟁에 들어갔다. 마틴스콜세이즈 감독과 E.T의 작가인 멜리사메튼, 해리스 포드가 한팀을 이루어 제작하게 되는 영화는 ‘Kundun(달라리 리마의 어린

인스미트가 한팀을 이뤄

달라리 리마 영화제작에 참여한다. 스미트필름에서는 어린시절 달라리 리마를 가르쳤던 헨리해러가 자서전적으로 쓴 책을 근거로 해서 제작하게 되는데 브래드피트가 핸리해러역을 맡았다.

‘달라리리마 일생’ 영화제작 美 허리우드 뜨거운 경쟁

시절 애정). 영화제작의 지원원 위해 멜리사메튼과 해리스포드는 티벳문화 보존 캠페인에 참여하며 티벳지도자들을 만나는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중이다. 스미트필름에서도 브래드피트와 영국의 제작자인 래

모두에게 의뢰적인 호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Kundun’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분할 티벳인 3명을 직접 발탁했고 각 대본을 읽어본 후 ‘대단히 극적이며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지구촌 불교

현대인들의 관심사와 의문

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해답이 인터넷 ‘바우’ 사이트 한 곳에 모아졌다. (http://www.inet.co.kr/cyberub/tow) 바우사이트는 주로 상좌부 불교를 주로 다루는 태국의 사이트로 상좌부 불교

다 선사의 ‘불교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저서에 근거해 불교적 답변을 제시했다. 특히 불교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 다룬다. 선사는 불교는 여성에게 종교적 자유를 부여한 급진적 가르침이며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의

“인터넷 바우사이트 들어가면 다마난다선사 만날 수 있다”

의 소개와 출판 뉴스 등을 주

로 다루고 있다. 바우사이트에 다루고 있는 현사회의 이슈로서는 세상의 기원, 불교에서의 여성의 위치, 결혼에 대한 불교적 입장, 문화와 영혼, 종교적 범피, 무신론 등으로 다마난

지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열매주의도 나란주 사물도 아닌 현실주의 불교로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으며, 사이트 안에는 버트린드 러셀 아인슈타인 등의 불교에 관한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나대지 “急” 구함

전국일원 국도변 나대지와 준 농림지역을 급히 구하고 있으니 소유하신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가 270-1 공영빌딩 308호 전화 : (02) 278-2924 ~ 5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지우려고 집중력, 판단력, 정열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력을 증대하며 신(神)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만성질환 90.9%, 심장질환자 92.9%, 류마티스 91.3%, 어지러움증 91.3%, 부종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9%의 효과를 체득하고 있음 기록됨.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링방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역작!

출가자에게는 수행의 지침! 재가자에게는 삶의 지표! 보살사상 경구선집

보살사상은 대승불교의 핵심사상이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그 근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것은 한국불교의 열악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보살의 진정한 모습과 그 정신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속의 모든 불자들이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지침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金日河(홍명) 스님 설법테이프

부처님 호흡법과 단전호흡, 테이프 ① ②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교전통호흡법을 소개하고 호흡과 기(氣)와 마음, 선정의 관계를 밝혔으며 전통적인 단전호흡, 기(氣)수행원리를 밝혔다. 테이프 ③은 전국최초능력자 수시명을 취재 보도한 바 있는 영남일보 변성식 기자와 대담한 취재 형식의 내용이다. 테이프 ④는 법문을 듣는 수행 청중과 토론한 내용이다.



「전통적인 불교수행법은 어떤 것인가? 단전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기(氣)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가?」 전국 불교 서점에서 구입하십시오. * 아래로 곧 나오십니다. 대웅불교음반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142-1 (053) 755-9537, 742-4017